

○ 도농기원,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화 실현 박차- 제주신문 3면

도농기원,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화 실현 박차

제주도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국가보증 최상위급 무병 우량씨감자를 매년 15t 이상 생산 공급하며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

혔다.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은 지난 2월 봄 재배용 11.9t을 비롯해 지금까지 234.2t의 씨감자를 공급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제주신문 3

○ 제주농업기술원,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화 ‘총력’ - 제주매일 3면

제주농업기술원,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화 ‘총력’

올해 ‘탐나’1.8톤·‘대지’6.6톤 공급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화 실현을 위해 국가보증 최상위급 무병 우량씨감자 공급에 나서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씨감자 자급화를 추진, 농산물원종장을 마련하고 배양·경삽실 1천36㎡, 수경재배사 5개동 1만 6천500㎡ 등 전국 최대 수경재배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원종장은 이를 토대로 올해는 지난 2월 봄 재배용 11.9톤을 비롯해 지금까지

234.2톤의 씨감자를 공급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지역농협을 통해 가을재배용 씨감자 ‘탐나’ 1.8톤과 ‘대지’ 6.6톤 등 총 8.4톤을 공급 완료했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지난해 재배면적과 공급실적 및 신청량을 고려해 구좌읍 23%, 대정읍 20%, 성산읍 17%, 기타 지역에 40%를 배정했다.

원종장은 올해 초 경락가격이 좋았던 ‘탐나’ 품종에 대한 농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는 농가 수요조사(7월) 결과를 반영해 ‘탐나’ 30%, ‘대지’ 70% 수준으로



가을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제주매일 3
생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동우 기자

무병 우량종자로 씨감자 완전 자급화

농업기술원 총 234.2t 공급 경락가격 높은 '탐나'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국가보증 최상위급 무병 우량씨감자를 매년 15t 이상 생산 공급하며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은 배양·경삽실 1036㎡, 수경재배사 5개동 1만 6500㎡ 등 전국 최대 수경재배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난 2월 봄 재배용 11.9t을 비롯해 지금까지 234.2t의 씨감자를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된 씨감자는 각 지역 농협과 공급협의회에서 지역별 공급량 배정 방법, 공급시기, 공급가격 등이 결정됐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지난해 재배면적과 공급실적 및 신청량을 고려해 구좌읍 23%, 대정읍 20%, 성산읍 17%, 기타 지역에 40%를 배정했다.

올해에는 일찍 공급받기를 원하는 농가 의견을 반영해 공급시기를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공급했으며, 공급가격은 생산원가 25% 수준인 7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공급된 씨감자의 품종은 지난해 2월 실시한 품종별 재배의향 조사결과인 '탐나' 20%, '대지' 80%를 반영한 결과다.

올해 초 경락가격이 좋았던 '탐나' 품종에 대한 농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는 농가 수요조사(7월) 결과를 반영해 '탐나' 30%, '대지' 70% 수준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한라일보 6